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새벽말씀

주일 말씀이 금주 크게 못하는 때이니 작게라도 충성으로 매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이고 하니, 크게 못하는 때이다. 크게 전도도 할수 없는 때다.

때에 맞춰서 크게 못하니 아예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이 코로나 끝나고 크게 하자 하지 말고, 지금 매일 시간이 가고 역사가 돌아가니, 지금 하나님이 크게 바라지 않으니 처지와 환경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작게라도 꼭 해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라. 중단하면 안된다.

사람이 건강이 안좋을때는 크게 숨을 못섭니다. 그렇다고 작게라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가뭄에 지금은 비가 오죠? 웬만한 것은 해갈이 되었어요. 그전에 비가 올때만 기다리지 말고 물을 줘서 작게라도 빨아들이게 하라. 물을 계속 줘서 장마철까지 연결시켜 놓았더니, 살아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법칙이 그러하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행하실때에 먼저 크게 행하지 않으시고 작게 행하십니다. 작게 행하시다가 그것이 잘하고 법칙을 알고 기술이 익혀지고 능통하게 될 때는 점점점점 크게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크게 하도록 배웠으니, 역사를 함께해 주십니다. 법칙을 절대 알고 이번주에 더욱 그리 행해야 되겠어요.

그리하다가 시대 여건을 따라 크게 할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사람들은 흔히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들려 오는 소식을 통해서 보지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할때나 장사하고 식당이나 작고 큰 기업을 운영할 때 충격을 받아서 1/10 밖에 장사가 안되니까 현재 유지도 안된다고 문을 닫은 자들이 많습니다. 열어봤자 손해간다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 그 집에 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있어요. 코로나 장기전이 되어서 3년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게 하다가 안되어서 작게라도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받으며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게 하다가 작게 못하니 다 가게를 내 놓았는데, 그런데 작게라도 하는 사람은 팔지 않겠다. 코로나까지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작게라도 안하면 중단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 마나다. 하는 사람은 상점 내놓듯이 내놓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흑암들이 사가버리죠. 보다 하는 자에게 넘어갑니다. 제값도 못받고 팔죠.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작다고 소홀히 말고, 무시치 말고 한다는 것이 큰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적게라도 흘러가는 골짜기는 썩지 않고 작게라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와같이 작게라도 꼭 할 수 없는 여건때는 하라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크게 하다가 안될 때 작게라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니라. 지금은 작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크게하다가 작게 하니까 할 마음이 심리적으로 없어지더라구. 100명 모여서 하나, 만명 모여서 하나, 열명 모여서 하나, 순서는 다 밟아야 해요. 설교할 때 몇 명만 모였다고 안할 수 없잖아요. 준비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기 힘들죠. 만사가 그러합니다. 많이 할때는 청중의 힘을 받고 크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하죠. 그런데 작게 하면 볼품도 없고 불만한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러합니다.

그래도 계속 작게라도 하는 것이 앞으로 크게 할 일을 만드는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작게라도 안하면 앞으로 큰 역사를 못맞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나죠.

요즘에 작게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중에게 하면 전체에게 듣는데, 소수에게 하니까 답답하고 시간 내기가 어렵고 싫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이 떨어졌으니 작게라도 열심히 하니까 작은 나무라서 불이 잘 붙었습니다.

작게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작게라도 계속 하니 여건을 보여주는데, 역시 썩이 있는데, 썩은 반향, 뱀, 사탄의 세계를 말하죠. 지팡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아 죽어야 하는데, 작은 도장밖에 없어. 작은 대가리를 수십 번 때리니까 썩이 죽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꿈을 꿔는데. 역시 작게라도 계속 하니 썩 대가리가 깨졌어요. 썩 대가리가 엄청 작잖아? 그게 돌도장이거든? 계속 때리니까 결국 죽더라구.

그리고 가다 보니 뱀이 있는데, 조그마한 한뼘 반밖에 안돼. 작은 뱀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발로 밟아버렸어.

이와같이 처지에 그때 그때 할 일을 해야됩니다.

방금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기가 있는데 한뼘 밖에 안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어항이 5미터 10미터 깊어요. 거기서 계속 올라오더라구. 고기 잡는 그물이 조그마한데 수십번 떠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이와같이 작더라도 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크게 할 수 없는 시대에는 작게 행한 것을 크게 행한 것으로 보시고 대해 주십니다.

지금 이시대 코로나로 모임을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작게하라고 하셨으니, 작게함이 크게함과 똑같다.

모이면 2-3만명 모여서 역사를 하고, 수련회때는 매일 2천명씩 수련회를 치르죠? 그러나 지금은 1/1000밖에 안되는 작은 숫자예요. 힘도 안나고 심리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했더니만 2000명씩 하던 것 500군데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각 교회에서 2군데서만 수련회 하면 돼요. 그러면 한달 동안 계속 수련회 하는 거예요. 쪼개서 각 교회마다 하면 돼요. 코로나 없을 때도 그전에 교회마다 수련회 했죠? 그대신 철저하게 물도 감시, 환경 감시하라고 해서 그때도 다양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구. 월명동도 3-4명씩 오지만,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몇 명씩 하면은 400개 교회에서 4명씩만 하면 1600명씩 매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그때 만족하고 살아야 해요. 어제도 생가 기념관 처음으로 다시 개방했어요. 중고등부 왔길래, 몇 명 와서 방 안에서 얘기해주고 세밀하게 해주니까 마른 나무 불 붙듯이 금방 붙어버려요. 할 일을 다했어요.

그전에 본 것은 보여주지 않고, 코로나 기간때 해 놓은 것을 얘기해 준거예요. 내가 이와같이 비를 맞으면 일했다, 너희도 하자고 하니까, 아주 짹짹하고, 비디오로 찍은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날대로 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없고, 많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작더라도 열심히 충성으로 하라. 열심히 하니까 만족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조용히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작게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수영장도 코로나 전에는 1000명씩, 5000명씩 돌렸는데, 지금은 7-8명씩 나눠서 수영을 하는데 마치 원앙새들이 물 위에 노는 것같은 분위기를 주더라구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준비할 것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흰돌 교회 중고등부 왔는데 성령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비 맞아가면서 했습니다. 일양골 가고, 연못에서 수영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니 충격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이와같이 자기 위치에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건이 없어요. 크게 할 때에 눈이 안 돌아가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살살이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성지땅에서도 지금 작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난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간 지나가면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두 무리를 지어서 해야 되겠죠? 지금이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라고 했어요. 해보니 꼭 해야 될 시기였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의 신앙의 일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합니다. 꼼꼼한자, 세밀한 자, 이것이 굉장히 큼니다. 성장기에 작은 일을 잘하라고 했죠? 크면 큰일을 하죠? 원리와 법칙을 아니까 그러합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깨닫고 구체적인 것을 알았으니 확실히 알고 뛰고 달릴 때입니다. 지금은 작게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교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큰 것만 쫓아다녀서 했는데 작은 것을 안하면 꿈꿉니다. 정리하는 일들, 뒷 일이라고 합니다. 큰 일 하고 나면 작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쓰게 됩니다. 작은 일을 안하면 마치 건물 지어놓고 인테리어 안하는 것과 같아요. 작은 일을 해야 크게 해놓은 것이 빛이나고 웅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만남을 못할 때 작은 시간이라도 만나야 해요. 잠시라도 만나 얘기를 하면 큰 역사가 연속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큼니다.

선생님은 큰 돌을 쌓기 전에 작은 돌을 쌓으면서 원리를 배웠죠? 그래서 자연성전에 130톤 되는 돌들을 척척 쌓아놓으니까 비가 와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야 큰 일도 합니다. 완성치 않은 물건이나 환경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해도 가치가 없죠. 그리고 필요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클 때에 작은 일에 열심히 못하면 큰 일도 잘 안됩니다. 이것을 알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 작게라도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자꾸 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게시의 말씀을 충성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어요. 각종 사연 기도, 아픈자 기도합니다. 아프다고 다 월명동으로 오려고 하지 마요. 지금 수련회 기간이라서 작더라도 개인에게 시간이 다 들어갑니다.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고.

사탄 멸하는 기도, 악평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담판짓는 기도, 우리를 괴롭히면 자꾸 쫓아가서 싸워라.